

30대 초반 56% 미혼...20년 만에 3배 ↑

인구 20%는 청년...2050년11%로 축소

청년 3명 중 1명은 “부모 도움으로 생활”

평균 혼인 연령대인 30대 초반 청년 중 56%가 미혼인 것으로 집계됐다. 20년 전에 비해 그 비중이 3배나 늘었다.

통계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주택총조사의 청년세대(만 19~34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청년 중 82%는 미혼...30대 초반 미혼은 56.3%

2020년 기준 청년세대의 미혼 비중은 81.5%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 가운데 평균 혼인 연령인 30~34세 청년의 미혼 비중은 56.3%로 집계됐다. 2000년 18.7%에서 20년 만에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미혼을 선호하는 청년세대의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20대 후반(25~29세)의 미혼 비중은 20년 전보다 33.2%포인트(p) 늘어나 87.4%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청년의 미혼 비중은 남자가 더 높는데 여성의 경우 2005년 미혼 비중이 56.2%로 절반을 넘긴 후 그 증가폭이 남자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 20%는 청년...2050년 11%로 축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청년 인구는 총인구의 20.4%인 102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 인구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2050년에는 총인구의 11.0%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청년의 53.8%는 수도권에 거주했다. 2000년 이후 수도권과 중부권에 거주하는 청년의 비중은 점차 증가해온 반면 호남권과 영남권에서는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세대 중 대학 이상을 졸업한 비중이 절반을 넘는 53%로 나타났다. 여자(58.4%)가 남자(47.8%)보다 비중이 컸다.

청년세대 중 62.5%는 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됐는데, 특히 여자의 경우 61.1%가 경제활동을 한 인구로, 남자와의 비중 차이가 20년 전 23.6%p에서 2020년 2.7%p로 축소됐다.

아울러 재학 혹은 휴학 등 학업 중에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의 비중은 2000년 13.3%에서 2020년 28.4%로 증가했다.

◆혼자 사는 청년 60%는 월세살아
청년 5명 중 1명인 20.1%는 혼자서 살았는데, 이 비중은 20년 전에 비해 약 3배 늘었다. 반대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비중은 55.3%로, 2015년까지 계속 증가세 이다가

2020년에 감소로 전환했다.

이들이 혼자 사는 이유는 직장 때문인 경우가 55.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독립생활*(23.6%)과 학업(14.85%)이 뒤를 이었다.

혼자 사는 청년 중 대다수인 96.9%가 미혼이었고, 77.6%가 졸업한 상태였으며, 75.7%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중 97.2%가 미혼이었고, 66.4%가 졸업, 53.6%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혼자 사는 청년 중 월세(사글세)로 사는 비중이 58.2%로 60%에 육박했다. 전세는 26.6%, 자가는 10.5% 비중을 차지했다.

◆청년 3명 중 1명은 “부모 도움으로 생활한다”

청년 중 65.2%는 일과 직업(배우자 포함)을 통해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명 중 1명(29.5%)은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했다.

/뉴시스

여수광양항만공, ISO37301 ISO37001 3년 연속 인증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ISO37301(준법경영시스템)과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3년 연속으로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준법경영시스템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에서 제정한 정식 국제인증규격으로, 조직의 효과적인 준법·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이행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경영전반의 지점·산업규약·사회적 윤리 등을 포함한 실행의 효과성과 운영체계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인증이다.

YGPA는 이번 인증을 통해 경영전반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고 경감을 위한 예방활동과 준법·부패방지 관리체계의 충실성과 실효성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과 그와 관련된 준법·부패방지 활동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허상국 한전KPS 부사장 최고품질경영자상 수상

허상국 한전KPS 발전안전사업본부 부사장이 한국품질경영학회가 수여하는 최고품질경영자상(CQO-Chief Quality Officer)을 수상했다.

27일 밤·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 한전KPS에 따르면 이상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매년 국내 산업 발전과 품질경영 활동에 공헌한 품질경영부문 최고책임자를 선정해 수여한다.

허 부사장은 지난 24일 여수에서 열린 한국품질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술·업무·소통혁신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 활동에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전KPS의 품질경영 노력은 앞서 품질경영력 우수기업 1등급 24회 선정, 전국품질 분임조 대회 대통령상 27년 연속 수상, 한국품질만족지수 1위 기업 12년 연속 선정 등 다양한 대외 수상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고품질 정비기술력은 올해 우루과이 전력청(UTE)과 2년간 최대 515억원의 계약 체결을 비롯해, 남아공 전력공사(ESKOM)와 3년간 총 848억원 규모의 계약 체결 성과를 이뤘다.



굴, 작년 대비 13.5% 비싸져 2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굴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감굴(노지) 소매가격은 10개에 3564원으로, 1년 전 3141원보다 13.5% 오른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영암 단감 박문수·보성 참다래 박창현 농가’ 과일대전 최우수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나주 배 김행복 농가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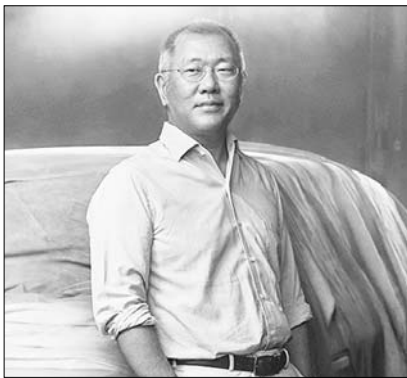
영암 단감 박문수(왼쪽) 농가, 보성 참다래 박창현 농가.

전남도는 ‘2023년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영암 단감 박문수 농가와 보성 참다래 박창현 농가가 최우수상, 나주 배

김행복 농가가 장려상을 수상해 전남 과일의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대표과일 선발대회는 국산 과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고 수입과일과 경쟁 가능한 생산·소비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 시작해 올해로 13회째를 맞았다.

전국 각 시·도에서 추천한 사과, 배, 단감 등 일반과수 7종과 밤, 뽕은 감 등 산과수 4종을 대상으로 외관 및 개척, 과수원 등을 종합평가해 대상 1점과 과종별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등 모두 46점을 선발했다. 최우수상은 장관표창과 200만 원, 우수상·장려상·특별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권형안 기자

정의선 회장, 美 오토모티브 선정 ‘올해의 리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자동차 산업 올해의 리더로 선정됐다.

세계적 권위를 지닌 미국 유명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브 뉴스는 27일(현지시간) ‘2023 오토모티브 뉴스 올스타’ 38인을 발표하고, 정 회장을 그 중 최고 영예인 ‘자동차 산업 올해의 리더’로 선정했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1925년 미국에

혁신 의지·미래 비전 높은 평가...“대담하고 창조적 구상”

서 창간된 자동차 전문매체로 영미권 독자 외에도 온라인판, 중국판 등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편집국 에디터와 소속 기자의 엄격한 심사과 평가를 거쳐 매년 30여 명의 글로벌 자동차 산업 올스타를 발표한다. 그 중 지난 1년 동안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들 ‘자동차 산업 올해의 리더’로 선정한다.

대표적으로 2014년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피아트 크라이슬러 CEO와 2018년 메리 바라 GM 회장 겸 CEO, 2020년 빌 포드 포드 회장 등이 역대 ‘자동차 산업 올해의 리더’를 수상했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정 회장은 다양한 미래 기술을 선도하며 모빌리티의 새 역사를 써술하고 있다”면서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지향적 비전으로 현대차그룹을 차세대 모빌리티 게임 체인저로 바꾼 정의선 회장의 파격적 혁신 의지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차별화된 전동화 전략과 신사업 추진도 선정 이유로 꼽혔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정 회장은 첨단 로봇과 인공지능(AI),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등을 포괄한 혁신적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 구상은 대담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창조적”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광주점 영업종료 철회

백화점 부지 변경 조치...광주신세계-금호고속 협약체결

광주신세계 백화점 확장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이마트 광주점의 영업종료결정이 없던 일이 됐다.

광주신세계는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백화점 신관(이마트광주점 건물) 영업종료 결정 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이날 백화점 확장 부지를 이마트 광주점에서 금호유스퀘어 문화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고, 이사회에서 이마트 광주점의 영업종료 철회를 의결했다.

앞서 광주신세계는 지난 9월 백

화점을 확장을 앞두고 이마트 광주점營業을 10월 10일 종료한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광주신세계는 백화점 확장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이마트 광주점의 폐점 일정을 연기하고營業을 해왔다.

광주신세계는 이날 오전 광주시, 금호고속과 함께 광주시청에서 금호터미널부지에 새로운 랜드마크 백화점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권형안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 비관론 확산

중개사 3개월 뒤 집값 ‘하락 전망’ 급증 추세

팔 사람 늘었지만 살 사람 없어 ‘빙하기’ 조짐

부동산 시장이 2차 하락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다. 회복세를 보이던 매매 거래량이 다시 주춤하는 흐름으로 바뀌면서 시장 매물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 당분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본 중개업소들도 증가하고 있어 2차 하락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 매매가격 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15.4포인트 내린 82.8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3월(78.0)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매가격 전망 지수는 전국 6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3개월 뒤 집값에 대한 전망을 물어 산출한 지표다. 0~200 범위에서 100 미만이면 ‘하락’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에 98.2를 기록하면서 하락 전망이 우세해진 이후 2개월 연속 집값 하락을 내다본 중개업소가 더 많은 것이다.

거래시장에선 ‘매수자 우위’가 확고해졌다. 이달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26.1로 전월보다 10.8포인트 하락했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내에서 지수가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다는 뜻이다.

주택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들의 이 같은 흐름은 금리 상승, 대

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거래가 감소함과 동시에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 기대심리가 사라진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안 회복세를 타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10월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26일 기준 2293건이다. 부동산 매매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라 이달 기한이 남아있긴 하지만 9월(3372건)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7개월 만에 3000건을 밑돌 것이 확실시된다.

일선 부동산중개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도 거래량 급감이다. 부동산 빙하기가 다시 도래하는 등 조정 국면이 시작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K중개업소 대표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금리가 내려가야 하는데 아직은 내려갈 기미는 안 보인다”며 “몇 달 전에는 급매물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의도 거의 없어지면서 거래가 푹 끊겼다”고 말했다.

매매가격 상승세도 둔화하는 흐름이다.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 월간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0.04%로 9월(0.26%), 10월(0.24%)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이 대폭 축소됐다. /뉴시스

광양제철, 광양사랑상품권 34억7천만원 구매

포스코 노조 협약 이행...직원 6940명 1인당 50만원권

광양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말을 앞둔 12월 초 광양사랑상품권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10일 타결된 포스코 노동조합 ‘2023년 임금 단체협약사항’으로 6940명 임직원 1인당 50만원씩 총 34억7000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부터 임단협 단체교섭을 시작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까지 거친 끝에 10월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11월 10일 찬반투표 후 13일 조인식을 거쳐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포스코에서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50만원은 광양지역 내에서만 사용되며, 상품권이 지급되는 6월 이후부터 지역 상가가 크게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발행을 시작한 광양사랑상품권은 2023년까지 3723억9400만원을 판매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2022년 8월 모바일 상품권으로 변경하면서 500억 원 발

행을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가 지속되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198억 원의 저조한 판매 기록을 보였다.

하지만 2023년에는 광양사랑상품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10% 캐시백 적립이 널리 알려지면서 600억 원 발행이 조기 달성돼 9월 1일 판매를 종료했고, 내년에는 7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할 인관매 예산 70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 근로자에게 지역상품권을 구매해 지역에서 소득을 얻고 지역에 소비하는 선순환 경제체제를 도모이 되도록 앞으로도 포스코가 기업시민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올해 포스코 창립 이래 첫 노사분규가 발생했으나 파업까지 치닫지 않고 노사의 양보와 협력 속에 타결되고, 그 결과 물로 지역상품권을 구매해 지역에 활력을 주게 되어 감사하다”며 “광양시 산업현장의 노사의 화합 속에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광양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광양시노사민정협의회가 그 역할을 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준희 기자